



* 등급정보 (계란) *

▷ 28개 업체에서 생산한 4천615만6천개에 대한 등급판정 실시결과, 1등급은 87.8%, 1등급은 9.8%, 2등급은 1.6%, 3등급은 0.7%를 차지, 전월대비 373만6천개(8.8%) 증가, 전년동기(24개 업체, 3천888만2천개)대비 727만4천개(18.7%) 증가, 금월누계는 3억7천313만8천개로 전년동기 누계대비 7천424만3천개(24.8%) 증가

계란 등급판정 개수 및 출현율

(단위 : 천개, %)

종량 규격	개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10년 1~9월	373,138	335,362	89.9	28,779	7.7	4,723	1.3	4,273	1.1
10년 8월	42,420	37,084	87.4	4,069	9.6	538	1.3	730	1.7
10년 9월	46,156	40,529	87.8	4,543	9.8	751	1.6	334	0.7
왕란	284	193	68.1	90	31.9	-	-	-	-
특란	34,009	30,324	89.2	3,421	10.1	120	0.4	144	0.4
대란	11,779	10,011	85.0	975	8.3	603	5.1	190	1.6
중란	85	-	-	57	66.9	28	33.1	-	-
소란	-	-	-	-	-	-	-	-	-

* 축산뉴스 (계란) *

‡ 산란계농장, 평사·방목형태 사육 전환 유도

전라남도는 FTA 개방에 대비해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녹색축산 실천을 위해 산란계농장의 사육방식을 동물복지 실천에 중점을 둔 평사 및 방목축산 형태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9월 27일 밝혔다. 현재 전남도내 산란계 농가의 사육실태 조사 결과 전체 145농가에서 535만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 중 케이지사육농가는 106농가, 평사농가는 39농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산란계 사육방식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2015년까지 평사 및 방목축산 운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축 사육일도 준수, 가축이 충분히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 확보, 마을 주거환경에 피해를 주는 축사 이전, 동물복지를 강화한 산란계 사육방식 개선(평사사육)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돼

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가 의식전환 교육 및 정책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포항우수축산물 '영일촌 계란' 시민에게 인기

경북 포항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축산물 '영일촌 계란'이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를 통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지난 9월 25일 밝혔다. 당일 생산된 신선한 계란을 생산과 동시에 포장해 중간 유통단계를 없애고 대형유통매장에 직거래로 공급할 뿐 아니라 생산자 실명과 포장일자가 아닌 생산일자를 표시해 타 제품과 차별화를 통해 질 높고 우수성과 신선도로 소비자 신뢰를 얻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영일촌 계란의 공급으로 소비자에게는 지역의 우수하고 신선한 축산물을 직거래로 공급하고 농가에는 유통비용의 절감과 안정된 판매망의 확보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